

급성 췌장염과 동반된 횡문근 용해증에서 병발한 급성신부전 1례

부산대학교 외과대학 내과학교실
권은희 정현철 이수봉 박임수 나하연

횡문근 용해증은 외상, 약물, 감염 등 여러요인에 의해 골격근 손상이 유발되면서 근세포내의 물질들이 혈장으로 누출되어 발생하는 임상적 및 생화학적 증후군이다. 급성 췌장염환자에서 췌장에서 유리된 염증성 물질, 소화 효소, 독성 물질에 의해 드물게 골격근 손상이 유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저자들은 급성 췌장염 환자에서 횡문근 용해증이 동반되어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1례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38세 남자 환자로 3일간의 췌노 및 입주일간의 복통, 설사, 전신허약감, 근육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B형간염 의 특이사항 없었고, 음주력, 흡연력은 없었다. 내원시 환자는 급성병색에 진찰소견에서 혀의 말수 소견이 심하고 명치부 압통 및 장음감소소견을 보였다. 내원시 말초혈액검사소견상 백혈구 7,700/mL, 혈색소 10.2gm/dl, 혈소판 39,000/mL, Amylase 253IU/L, lipase 1,178IU/L, AST 2,433IU/L, ALT 833IU/L, HUN 74.9mg/dl, Cr 6.5mg/dl, Na/K/Cl 136/6.7/108mEq/L 이었다. 근육효소검사상 CK 10,000U/L이상, CK-MB 319U/L, Myoglobin 500ng/ml이상이었으며 urine myoglobin 검사는 음성이었다. 복부 CT 소견에서는 췌장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99m}Tc-MDP bone scan소견에서는 연부 조직에 다발성 섭취증가 소견이 관찰되어 횡문근 용해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다. 입원 요량 50ml이하의 부노 소견 지속되고 흉부방사선 촬영 소견상 폐부종 소견보여 증상 발현 7일 제 급성 혈액투석치료 시작되었고, 식이 중단하고 경정맥 인공영양 공급하며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다. 투석시작 7일제 입원 2,500-4,000ml의 이뇨소견 보이고 이후 BUN 27mg/dl, Cr 1.6mg/dl로 감소하였으며 근육효소치도 CK 19U/L, Myoglobin 33.1ng/ml로 감소하는 소견 보였다. amylase, lipase도 각각 105IU/L, 401IU/L로 감소하고 명치부 복통도 진통제 사용없이 조절되어 11일제 미음으로 식이 시작하였고 전신상태 및 경과 호전보여 퇴원하여 외래통원 치료중이다.

간이식후 급성신부전의 임상상과 예후

서울대학교 외과대학 내과학교실, 외과학교실*

김강석, 김세중, 오윤규, 오국환, 김연수, 안규리, 한진석, 김성권, 이정상, 서경석*

간이식 수술 후 급성신부전은 빈도가 높고 이로 인한 수술후 예후의 변화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급성신부전의 빈도, 임상양상, 예후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상환자는 1992년에서 2001년 6월까지 간이식 수술을 받은 만 15세 이상의 환자 중 후향적 연구가 가능한 35명 37예(사체간이식 20예, 생체 부분간이식 17예)로 하였다. 환자군의 성별은 남자22명 23예, 여자 13명 14예였고 나이는 49세(18-65세;median,range)였다. 간질환의 원인으로는 간경변 19예, 간경변+간암(PLCa) 11예, 간암 3예, 전격성 간염 3예 그리고 담도폐쇄증이 1예였다. 전체환자 37예중 사망환자는 11예였으며 사망환자의 수술후 생존일수는 22일(8-90일)이었고 생존환자의 추적관찰기간은 111일(38-430일)이었다. 간이식후 급성신부전은 28예(76%)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8명이 사망하였다. 수술 후 급성신부전의 발생 시기는 1일(0-39일)이었으며 유병기간은 4일(1-11일)이었다.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28예 중 수술중 장시간 지속된 저혈압이 있었던 경우가 17예, 급성거부반응 6예, 이식 간부전 1예, 대량수혈을 실시한 예가 9예였다. 수술 전 간성혼수, 원발성복막염, 복수, 위장관출혈은 수술후 급성신부전의 빈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간이식후 급성신부전이 나타난 환자중 3명이 투석을 시행받았으며 급성신부전 병발 후 생존한 20명은 신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거나 경한 정도의 신기능 감소만이 있었다. 이상에서 급성신부전은 간이식후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이며 이의 적절한 치료 및 예방법의 개발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